

KCCSTUDIO

수  
능  
국  
어  
의  
본  
질

집  
중  
력  
편

수  
능  
국  
어  
는  
구  
조  
가  
정  
답  
입  
니  
다

## 프롤로그

—이 책을 읽기 전에

반가워.

나는 지금부터 너에게 수능 국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줄 김 코치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국어를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평생을 노 베이스로 살아오다, 1년 만에 9등급에서 1등급을 달성하고 소위 말하는 SKY 대학에 운 좋게 입학했어.

입학한 뒤에는 약 1년 정도 입시 학원에서도 일하며 많은 수험생도 만났지.

나는 네가 수능 국어를 공부하며 겪을 만한 시행착오를 대부분 겪어봤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밑바닥을 겪어 본 사람의 정리본’임을 알아줬으면 해.

이번 『수능 국어의 본질 - 집중력 편』에서 다룰 내용은 수능 국어에 관한 기술과 독해 방법보다는, **기본적인 사고와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점을 참고하고,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길 바라.

- “나는 수능 국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 “이건 내 습관과 어떤 점이 다르지?”
- “왜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따라주지 않지?”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 목차

### 프롤로그

- 이 책을 읽기 전에

### 1장. 왜 집중力인가

- 국어는 의지가 아닌 구조로

### 2장. 국어 공부에서 가장 흔한 착각

-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함정

### 3장. 완급조절, 그게 뭔데?

- 시험장에서 필요한 사고

### 4장.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습관

- 1·2등급 수험생과 나머지의 차이

### 마치며

- 이후, 국어를 대하는 방식

## 1장. 왜 집중力인가

—국어는 의지가 아닌 구조로

집중력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수능 국어를 바라볼 때 반드시 먼저 갖춰야 할 태도부터 짚고 가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꾸준함이야.

이렇게 말하면 분명 ‘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일단 들어봐.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특히 국어 과목은 잠깐이라도 공부를 멈췄을 때  
감이 떨어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과목이야.

하루이틀 쉬다고 수학 실력이 바로 무너지진 않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어는 달라.

읽는 감각,  
생각의 속도,  
문장을 처리하는 리듬이  
생각보다 빠르게 흐트러지거든.

그래서 국어는  
한 번 잘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생각의 흐름을 가다듬는 게 훨씬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꾸준함은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 구조로 만든다.

국어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버티는 과목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과목이야.

이게 바로

집중력이 필요한 이유지.

국어에서 말하는 집중력은

한 번에 오래 버티는 힘이 아니야.

매일 비슷한 양의 글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당시 네가 어떤 사고 흐름을 거쳐 지문을 헤쳐 나갔는지를

계속 되짚고 조금씩 다듬어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답 정리야.

국어 오답 정리는

단순히 답지에 적힌 내용을 받아 적는 게 아니야.

네 사고를 가다듬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지.

그래서 오답 정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

**첫째. 맞은 문제도 다시 본다.**

‘맞았다’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넘기지 말자.  
답지가 말하는 정답의 이유와,  
네가 그 답을 고른 이유가  
정말 같은지를 비교하고 검증해야 해.

**둘째. 생각의 흐름을 가다듬는다.**

문제를 틀렀다면 먼저 답지를 보기 전에,  
해당 문제를 보며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 지문을 읽을 당시 오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 답지를 확인해서  
당시 사고방식과 어떤 차이가 존재했는지 확인해.

그리고 그 차이를 좁혀가며  
네 사고 흐름을 다시 정돈해 나가는 거야.

이게 국어 오답 정리의 정석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답 정리는 국어 성적이 향상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단추야.

절대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문제를 틀릴수록  
오답 정리를 통해 사고의 흐름을 점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자.

## 2장. 국어 공부에서 가장 흔한 착각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함정

국어 공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문이 안 읽힐 때가 아니야.

오히려,  
“잘 읽히는 것 같은데?”  
“이해한 것 같은데?”  
라는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 때야.

지문을 못 읽은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는 어느 정도 알겠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선지가 헛갈리고,  
답을 고르고 나서도 웬지 모를 찝찝함만 남지.

그리고 틀려.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렇게 생각 할 거야.

“아는데, 실수했다.”

하지만 수능 국어에서  
이런 생각은 치명적인 독이야.

이 생각이 쌓이고 쌓일수록  
네 국어 실력을 계속 갉아먹을 것이라는 거지.

이 '이해한 것 같다'라는 애매한 느낌이  
너의 사고를 멈추게 하거든.

사람은 글을 읽을 때,  
문장의 의미를 따라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

이 느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문제를 푸는 데에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만을 받고,  
더 이상 사고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이해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지점에서 사고를 멈추는 성향이 있거든.

지문을 읽으면서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읽으며 이해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정작 그 개념들로 구조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던 거지.

이건 노 베이스 친구들이 하는  
아주 흔한 실수라고 할 수 있어.

결국 핵심은 이거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고가 작동했는지.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성적은 제자리걸음일 뿐이야.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그럼, 사고가 작동했다는 건  
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  
글을 읽을 때의 네 방식이 어떤지 잘 생각하며 읽어봐.

### 3장. 완급조절? 그게 뭔데?

— 시험장에서 필요한 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고의 작동에 대한 기준부터 짚고 넘어가자.

사고의 작동이라는 건  
지문의 첫 문단을 읽을 때부터 결정돼.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  
이 표현을 통해 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론적으로는 어떤 말을 하려는 건지.

결국 글의 본질적인 구조를 의식하며 읽을 때,  
비로소 시험장에서 필요한 사고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반대로 글의 본질적인 구조를 의식하며 읽지 않는다면  
그건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한 것 같은 기분’만 느끼며 단지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뭔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며 답답한 감정만 드는 거야.

자, 그럼 완급조절이 뭔지,  
네가 시험장에서 글을 읽을 때 해야 할 사고가 뭔지 이야기 해 볼 거야.

이런 기술, 독해 방법론적인 부분은  
『수능 국어의 본질 - 독해 편』에서 따로, 더 깊게 다룰 예정이야.  
지금 내용이 와닿았다면,  
그다음 단계로 독해 편을 이어서 읽어보길 권할게.

먼저, 네가 시험장에서 읽게 될 글들은

수험생에게 시험을 내기 위해  
교수님들이 몇 주 동안이나 고심해서 만든,

아주 정교하게 유기적으로 설계된 글이라는 전제부터 가져가야 해.

내가 말하는 ‘글’은 비문학 지문이 될 수도 있고,  
문학 <보기>나 문제, 선지 등  
시험지 위에 쓰인 모든 ‘글’ 들을 말하는 거야.

이 말은 즉,

너는 시험장에서 그 글들을  
모두 같은 정도의 힘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만약 글을 읽을 때 이 완급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길을 잃고  
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아리송한 느낌으로  
두세 개 선지 중에서 고민할 확률이 높아.

당연히 처음엔 나도 그랬고 말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추고 난 뒤  
이 부분을 극복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해줄게.

그럼, 네가 시험장에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느 부분에서 힘을 주고, 뺄지  
몇 가지 기준을 설명 해줄게.

### 첫째. 지문이 시작되는 순간, 파악하자.

비문학에서, 지문이 시작하는 첫 부분은 반드시 ‘대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출제자는 지문의 도입부에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할지 너에게 예고 해야 하거든.

예를 들어 어떤 지문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가정 해 보자.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이 문장은 아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글이 ‘정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는 점을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해.

### 둘째. 연결어가 나오는 순간, 의식하자.

지문을 읽다 보면 연결어가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야.  
연결어라고 하면

(그러나 / 하지만 / 반면에 / 이와 달리) 와 같은 <역접>,

(그러므로 / 그래서 / 따라서 / 그로 인해) 와 같은 <인과>,

(나아가 / 게다가 / 또한 / 그리고) 와 같은 <첨가>,

(예를 들어, 다시 말해, 말하자면, 즉) 와 같은 <예시, 설명>

지금 나열한 연결어들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연결어들이고,  
종종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연결어들도 나오곤 해.

자, 그럼 이런 연결어들이 등장했을 때  
왜, 어떻게 의식해야 할까?

먼저, 이 연결어가 나왔다는 건

출제자가  
독자의 사고 방향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

지문에서  
‘하지만’, ‘그러나’ 같은 역접 표현이 나왔다면,

그건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 그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신호야.

출제자는 이 지점부터  
방금까지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너의 사고를 이끌어 가겠다는  
일종의 ‘예고 표현’인 셈이지.

예를 들어서, “A는 오랫동안 많은 학자에게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 이론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앞 문단에서 A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역접 표현이 나온 순간부터, 출제자가 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A라는 이론의 한계’ 일 것임을 의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야.

그렇다면 ‘그래서’, ‘따라서’ 같은 인과 표현이 나왔다면 어떨까?

만약 지문에서,

“~한 이유 들로 인해 기존의 이론을 고수하던 학자들은 점차 줄었고,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엔, 앞에서 언급했던 A 이론의 문제점으로 인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이 문장이 결론이자,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될 것임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해.

결론적으로,

역접 표현은

사과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고,

인과 표현은

사고를 하나로 묶어 결론을 도출하라는 신호야.

마지막으로

‘또한’, ‘예를 들어’ 같은 첨가, 예시 연결어는

글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이미 나온 내용을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서 잡아둔 핵심을 유지한 채

읽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

어쩌다 보니  
비문학을 읽을 때의 완급조절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문학을 읽을 때 가져가야 할  
완급조절 기준도 이야기해 보자.

문학도 결국,  
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읽는 과목이니까.

**첫째. <보기>를 읽을 때, 집중하자.**

비문학과 달리 문학은,

교수님들이 직접 제작하는 지문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작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많은 수험생이  
문학 작품을 읽고  
같은 사고 흐름으로 답을 도출하게 만들기 위해,

출제자는 <보기>를 통해  
너의 사고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 놓는다는 점이야.

<보기>는  
이 작품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존재야.

그래서 문학 지문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고  
이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그리고 이 태도는  
문제를 풀 때도 그대로 이어져야 하지.

선지를 확인할 때 역시,

<보기>에서 잡은 관점을 기준으로  
선지를 읽고 판단하는 습관을 지녀야 해.

주어진 <보기>를 대충 읽는 순간,  
문학은 감으로 풀 수밖에 없는 과목이 된다는 걸 기억해.

### **둘째. 선지를 읽을 때, 판단하자.**

앞서 말했듯이,  
비문학은 교수님들이 직접 만드는 글이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어.

하지만 문학은 달라.

문학은 교수님이 직접 만드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이 아니라 선지에서 변별력을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거든.

글씨 하나,  
단어 하나만 교묘하게 바꿔  
너의 눈과 사고를 속이려 드는 거지.

그래서 문학은  
'읽는 과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지를 판단하는 과목이야.

<보기>가 있다면,  
반드시 보기에서 제시한 관점을 기준으로 선지를 읽고 판단하자.

만약 보기가 없다면,  
지문을 가볍게 읽어 흐름만 잡은 뒤  
선지를 읽을 때 반드시 힘을 주고 판단해야 해.  
문학에서 실력 차이는  
지문보다는  
선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갈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정리해 보자.

시험장에서 완급조절이란,  
모든 문장을 잘 읽는 게 아니야.

어디서 멈춰야 하고,  
어디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지.

이 기준을 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거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수험생들의 성적이 아주 많이 갈리기 시작해.

다음 4장에서는,

1·2등급 학생들과  
그 외의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습관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거야.

특별한 방법론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공부할 때, 지문을 읽을 때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에 관한 이야기야.

읽으면서  
지금 너의 습관은 어떤지,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읽어보길 바랄게.

## 4장.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습관

— 1·2등급 수험생과 나머지의 차이

내가 수험생일 때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약 1년간 일하면서,  
하위권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습관이 몇 가지 있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단순한 공부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공부 시간을 얼마나 쏟았는지도 아니고.

시험장에서 1·2등급 학생들과  
그 외의 학생들을 가르는 건,

갑자기 생겨나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 있던 습관과 태도 때문이야.

사람은 시험장에서  
새로운 태도를 발휘하지 않거든.

공부할 때 가장 익숙해진 태도와 습관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지.

그래서 이 장에서는

국어 실력을 직접 깎아 먹는  
공부 습관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해.

읽으면서  
너의 습관은 어떤지,  
한 번씩 점검해 보길 바랄게.

## 첫째. 사고를 중간에 끊어도 괜찮다고 만드는 습관

공부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거야.

“잠깐 본 건데 뭐.”

하지만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야.

핸드폰을 보는 그 순간,  
너는 단순히 집중이 흐트러진 게 아니라

사고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도 괜찮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학습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거든.

사고는 원래,  
한 흐름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어.

앞에서 읽은 내용 위에  
다음 사고가 쌓이면서  
점점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흐름이  
자주 끊기기 시작하면,  
집중력은 더 이상 길러지지 않아.

문장을 읽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와도 된다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습관은  
절대 혼자 공부할 때에서 끝나지 않아.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지문을 읽다가,  
어느 순간마다 사고가 끊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선지 앞에서 헛갈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야.

문제는,

이 상태의 수험생이  
본인은 아직도 '읽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데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읽는 게 아니라  
글자만 따라가고 있을 뿐인 거야.

1·2등급 학생들은  
이 지점을 그냥 넘기지 않아.

사고가 끊길 것 같을 때,  
의식적으로 다시 붙잡고  
한 문단을 구조적으로 가져가거든.

반면,  
사고를 끊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은  
그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

누가 옆에서 부르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고.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서 점점 집중력을 갉아먹는 거야.

이런 습관은,

시험장에서는  
집중력의 저하로,

사고의 지속력 저하로  
반드시 드러나.

### **둘째. 들쭉날쭉한 공부 패턴**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날들이 반복되지.

어떤 날은  
국어를 네다섯 시간 연속으로 붙잡고  
지문도 잘 읽히는 날이 있어.

그런데 다음 날은,  
문제 한두 개 풀다가 멈추고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부를 접어버리지.

또 어떤 날은  
의욕이 넘쳐서  
계획을 잔뜩 세워놓지만,

막상 책을 펴면  
10분도 못 가 흐름이 끊겨.

이렇게 공부의 강도와 리듬이  
날마다 들쭉날쭉해지는 패턴은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이야.

문제는,  
이게 단순히 '컨디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

사고는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어떤 날은 깊게 사고하고,  
어떤 날은 아예 사고를 안 하는 식의 공부가 반복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사고는 가끔만 해도 되는 것'으로  
학습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이 습관이 굳어지면,  
시험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처음 몇 문단은 집중해서 읽다가,  
조금만 흐름이 꼬이거나  
문장이 길어지면  
사고가 급격히 느슨해지는 거지.

결국 끝까지 사고를 유지하지 못한 채,

결국엔  
감으로 선지를 고르게 되는 거야.

1·2등급 학생들의 공부는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아.

하지만 대부분,

하루 공부의 강도와 리듬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핵심이야.

반면 들쭉날쭉한 공부 패턴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시험장에서조차  
집중을 ‘운 좋게 유지되는 상태’로  
여기게 되지.

### **셋째. 애매한 상태를 그냥 넘기는 습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자주 생겨.

지문을 읽다가  
문장이 완전히 이해되진 않는데,

“아마 이런 말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선지 하나가 마음에 걸리지만,  
굳이 붙잡고 생각하기엔  
귀찮아서 넘어가.

대부분은 이걸  
시간 관리나 요령 문제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

이건  
애매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는 습관이야.

사고는 원래,  
불편한 상태를 통과할 때 자라.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지점에서  
조금 더 붙잡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일 때  
사고의 밀도가 올라가지.

그런데 이 과정을  
자꾸 생략하기 시작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학습해버려.

이 습관은  
공부할 때만 나타나지 않고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지문을 읽다가  
논리가 한 번 꼬이는 순간,

사고를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대충 감으로 이어서 읽게 되지.

그러다 선지에 도착하면,  
어디서부터 애매해졌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은 채  
두세 개 중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야.

이 상태의 학생들은 이렇게 말해.

“읽을 땐 알았던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헛갈려요.”

하지만 그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은  
사고가 아니라  
넘겨버린 흔적일 뿐이야.

1·2등급 학생들은  
이 지점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아.

문장이 애매해지는 순간,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다시 붙잡지.

반면 애매함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그 순간을  
가장 먼저 포기해.  
그리고 이 차이는,

문제를 한두 개 더 맞히는 차이가 아니라

시험 전체를 관통하는  
사고의 지속력 차이로 이어지게 될 거야.

이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조금씩,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  
너의 집중력과 태도를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반대로 말해서,  
네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아, 이건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이네.”  
라고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의 국어 공부 방향은 분명 달라질 수 있어.

## 마치며

-앞으로 국어를 대하는 방식

이 책에서,  
특별한 공부법을 알려주려 하진 않았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화려한 요령이나 꼼수도 말하고 싶지 않았지.

대신,  
수능 국어를 공부할 때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사고를 멈추고,  
흐름을 놓치고,  
습관에 끌려가고 있었는지를  
같이 들여다보고 싶었어.

앞서 말했지만 국어는  
갑자기 실력이 느는 과목이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

읽는 태도 하나,  
멈추는 지점 하나,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습관 하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글을 대하는 느낌 자체가 달라질 거야.

이 책을 덮고 나서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앞으로 글을 읽다가  
사고가 끊길 것 같은 순간에  
한번 더 의식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들이 쌓여  
너만의 글을 읽는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 리듬이  
시험장까지 이어질 거야.

국어는 의지로 버티는 과목이 아니라  
구조와 습관으로 완성되는 과목이야.

이 책이  
그 구조를 만들고,  
그 습관을 돌아보는  
큰 바탕이 되었기를 바랄게.